

2026-06-15

(2026.01.12=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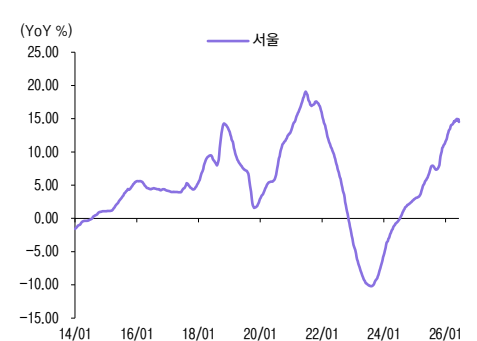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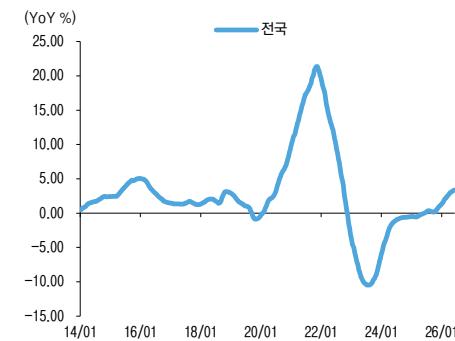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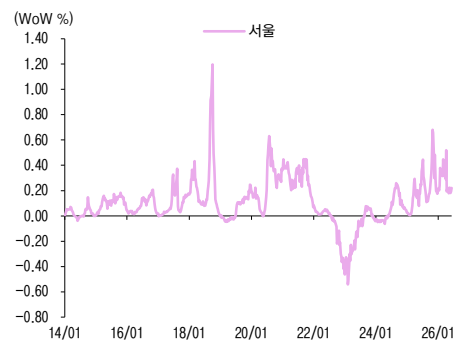
건설·건자재 김세련 / sally.kim@ls-sec.co.kr

항목	일자 (마지막 update)	Data	Chg Net (YoY)	Performance (%)								
				1D	1W	2W	1M	3M	6M	1Y	연초이후	
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국 (2026.01.12=100.0)	2026-06-12	101.7	3.3	n/a	0.1	0.1	0.2	0.8	2.0	3.4	1.8	
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서울	2026-06-12	105.5	13.4	n/a	0.2	0.4	0.8	2.7	6.6	14.5	6.0	
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부산	2026-06-12	100.4	-0.1	n/a	0.0	0.0	-0.0	0.1	0.5	-0.1	0.4	
아파트 매매가격지수 5대광역시	2026-06-12	100.2	-0.2	n/a	0.0	-0.0	-0.0	-0.0	0.3	-0.2	0.3	
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전국 (2026.01.12=100.0)	2026-06-12	102.1	3.7	n/a	0.1	0.2	0.5	1.3	2.5	3.7	2.3	
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서울	2026-06-12	104.3	7.5	n/a	0.3	0.6	1.2	2.9	4.9	7.7	4.5	
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부산	2026-06-12	102.1	4.0	n/a	0.1	0.2	0.4	1.2	2.7	4.1	2.4	
아파트 전세가격지수 5대광역시	2026-06-12	101.4	2.6	n/a	0.1	0.1	0.2	0.7	1.8	2.6	1.6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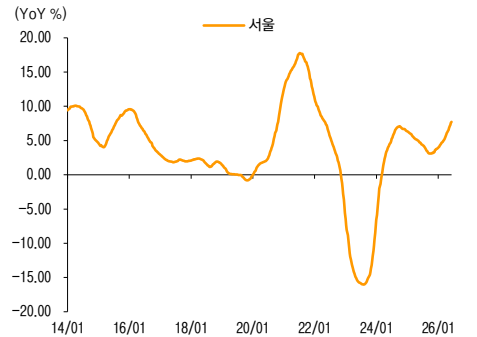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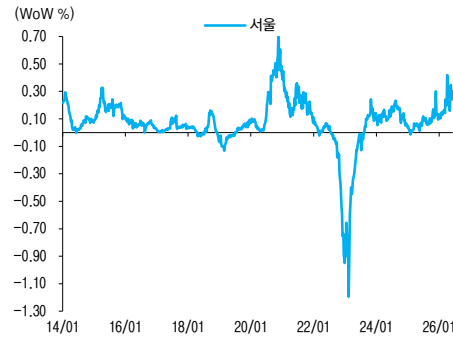
주: KB부동산, LS증권 리서치센터

이번주 Comment	지난주 주요 News Flow
<p>-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1.7로 +1.8% YTD, +0.1% WoW 증감함</p> <p>-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5.5로 +6.0% YTD, +0.2% WoW 증감함</p> <p>-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2.1로 +2.3% YTD, +0.1% WoW 증감함</p> <p>-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4.3로 +4.5% YTD, +0.3% WoW 증감함</p> <p>-업종지수는 코스피 건설업이 10.8% WoW, 코스닥 건설업이 1.3% WoW 증감함</p> <p>- 서울 아파트 가격, 거래 절벽에도 상승세 유지</p> <p>- 서울 주간단위 전세 가격 상승률, 10년만에 최대치 기록</p> <p>- 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 전망</p>	<p>-노도강 아파트 전세가을 文시절 '육박'...서울 외곽 집값 더 뛰나 (26/6/12 헤럴드경제) <a href="https://vo.la/08ew70R">https://vo.la/08ew70R</a></p> <p>-동탄 아파트값 일주일새 2% 뛰었다...'호가 27억' 서울 상급지 넘봐 (26/6/11 매일경제) <a href="https://vo.la/WUIGUnW">https://vo.la/WUIGUnW</a></p> <p>-홍대통령 "부동산 세제 7월 가능"...금융·공급 대책도 곧 발표 (26/6/08 파이낸셜뉴스) <a href="https://vo.la/NZ1NBcf">https://vo.la/NZ1NBcf</a></p> <p>-서울 아파트 전세·월세 '50대50'...월세화 현실됐다 (26/6/11 뉴스1) <a href="https://vo.la/unT6oMV">https://vo.la/unT6oMV</a></p>

### 아파트 매매 (WoW, YoY%)



### 아파트 전세 (WoW, YoY%)



## 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(작성자: 김세련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\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